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면서 자기 차원을 높이는 공부!

25면에서 계속

런 문제를 그나고 드는 한구멍에다가 모든 것을 보아 되지 않을까요. 그레아만이 선장이 그 뜻을 받아서 오로지 이 의식들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처결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있는 줄을 알게끔 하죠. 그게 깨우침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고 말씀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보고 수없는 생명들 속에 또 생명들을 보고 나니가 '내가 저 몸이 아니 되면 아니 되겠다.' 해서 잘나잘나 그 모습으로 화했더랍니다. 그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모습과 같지 않으면 저항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제도했다 말씀입니다. 제도하게 되니까 스스로 살면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지고 그래서 스스로 깨치게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됐으면 '아이구, 이거 막다른 골목이로구나. 나는 길인 줄 알고선 들어왔더니 이렇게.' 하고 도로 돌아오게 해서 대로를 걷게끔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즉 여러분의 자부처의 바로 가르침입니다. 차원을 높이는 가르침입니다. 다스림이지요. 그러나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면서 자기 차원을 높이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은 거지왕초고 그 제자들은 거지새끼들이라고 예전에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거지왕초란 쫄로 인해서 그 소리가 나왔나? 오는 거 막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생기는 대로 먹고 주지 않으면 안 먹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건데 그 뜻을 모르니까 거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말을 하다보니까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절간에서 해제가 되면 스님네들이 나가서 경도 읽고 랫도 하고 랫도 하고 나가서 한 쉼, 나가서 또 있다가 다시 결제가 되면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부 들어와서 "저는 화엄경을 읽었습니다." "법화경을 읽었습니다." 하고 전부 그러는데 딱 한 사람만 "저는 밥 먹고 잠 자고 똥 싸다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은사 스님이 들 때는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럼, 저 부처님 법당에 올린 저 공양은 왜 먹느냐?"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제 밥이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열이 그냥 이렇게 뻗었겠지요. 그러니까 담박 호통을 치면서 나가서 불목이나 하라고 내쫓았던 말입니다.

아, 불목을 하라는 데도 "예!"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아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나오서 그냥 나무를 해다가 파서 불을 때고 싱그럽게, 아주 신나게 한단 말씀입니다. 다른 대중들이 보니까 안,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 얘기도. 저렇게 신랄 수가 있나. 그냥 웃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왔다가 유리문이 반사되는 걸 본

인 줄 알고 거기를 주둥이로 자꾸 쪼다보니까 그냥 떨어져서 죽더라 얘기도요. 그런 거를 노래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레 노래를 하니가 그걸 처음에는 '저놈이 저렇게 주절거리고 돌아다니고 저저 사람 되긴 다 틀렸어.' 하고 모두 그냥 밀쳐서 학대를 하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웃고 즐기거든요. 그리고 일도 부지런히 하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 방에 불을 때려고 이렇게 장자를 끼고 오다가 그 노래를 또 했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 유리창문이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가 떨어져 죽네.' 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만 읽고 있는 자기 주지 스님이 말씀입니다. 책을 읽다가 들으니까 이상하니까 탁 덮고서 그 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아, 그 소리거든요. '출가구나! 저놈이 바로 깨진 놈이로구나.' 하고선 "애, 아무개야!" 불렀죠.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쥐고선 "너 내 자리에 앉아라." 그러고는 탁 앉히고선 삼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깨지면 삼배를 받은 놈이나 삼배를 한 놈이 두 놈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요. (대중 웃음) 그러니만큼 생활하는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느긋하게 그냥 하늘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 금방 내려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능률하게 지혜롭게 여유 있게 딱 버티고 한번 속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여유가 없으면 실패해요. 마음의 여유

또 이게 안되니까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해 놔다 안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서 이젠 사람이 살기에는 어른들이 너무 휘휘 둘러놓는 것 같아서 힘들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한 가정의 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자식들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어디다 세워놔도 살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관하는 것을 재산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어디다 세워놔도 이 주인공이 보디가드가 돼 주고 해설사가 돼 주고 그리고 항상 영원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바로 자기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 재산은 물려줘도 타낼 수가 있지만 이거는 망치려야 타낼 수가 없어요. 줄줄이 내려가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낳아 놓는 것이 아니,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일체 생물이 다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짐승들도 그렇고 참, 하다못해 쥐 한 마리를 봐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든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죽거나 말거나예요. 난 산에 다니면서 그런 걸 가끔 보죠. 산쥐들, 다람쥐들, 토끼들 뭐 새들, 부엉이들, 뭐 이런 어우니 늑대나 이런 거요. 아무리 판 사람한테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명을 겁니다. 자기 새끼들을 건드리려 하면 그냥 뭐 가차 없이 자기 생명을 걸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아가면서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연 중에서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만나갔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부부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렇게 살면서 상대가 바깥 인연에게 마음을 더 끌어서 그이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인연을 잘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이거를 잘 견디면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도 진실된 사랑이라면 놓아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그냥 살아가면서 나 싫다는데, 금은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나 싫다는 데야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선 놔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놔준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보통 말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차원이 똑같다면 그 열 사람 중의 하나가 자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원끼리 많고, 똑같은 차원끼리 또 많고 이렇듯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

게 자동적으로 거기가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또 인력이 돼서 앞서의 인력이 자꾸 없어지면서 인력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 내가 왜 그랬던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헛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우연히 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그 새끼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잘 살더라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피해서 헤어진다던 그런 영원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딴 자리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레도 안 되고, 딴 자리에 가서도 또 그럴 거 아니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고 간 사람이 거기 가서 또 그러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딱 들으니까 말씀입니다. 가십이 샅긋이 웃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꽃이 웃은 거나 사람이 웃은 거나, 사람 꽃이나 꽃이 나 똑같은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하는 그걸 아시고 이심전심으로 보살들의 이름을 다 탄생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정진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정진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다 아마 송장이 될 겁니다. 삶을 질러내도 모르고 꿈을 버셔내도 모를 겁니다. 지난번에 저기 삼박사에 올라가다 보니까 송장이 한 구가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 송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송장이, 자기를 보면서 거기 쪼르르고 앉았는 겁니다. 지치고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 산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고 살지만 죽은 영혼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얘기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 또요? 다 했어요?

질문자(여):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나쁜 인연에 대해서 드렸는데, 좋은 인연은 또 좋은 인연대로 자기 차원대로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걸 받고 갑니까?

스님: 그렇지, 그렇지.

질문자(여):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무우도 배기무우가 있고 공다리 무우가 있거든요. 허허허. (대중 웃음) 이 도리만 전체 다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다면 정말 사는 데에 피곤한 게 없이 여길 봐도 웃음이 나오지 거길 봐도 웃음이 나고 전부 그렇게 아마 웃고 살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웃다가 보니까 '아이구, 별로 우스울 것도 없고, 하하하. 아유, 또 울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죠. 좀 그렇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창하심)

(다음 호에 계속)

마음의 여유가 바로 자기를 소생케 할 수 있고
너그럽게 동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을 만드는 과정!

가 바로 자기를 소생케 할 수 있고 너그럽게 동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 도, 급하게 저저서 신도님이 와서 "지금 하혈을 한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런단 말씀입니다. "아, 그랬으면 그랬지 웬 게 이렇게 급하게 아담법석이나, 급하게 나한테 온다고 급하게 되는 게 아니잖나. 급하게 들었으니까 급하게 하겠지." 그리고선 그냥,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똑같이 이렇게 하니가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길 "하혈이 멈췄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인이지요. 예를 들어서 권투선수가, 아주 제일가는 권투선수가 그냥 어느 데 조그맣게 그냥 권투하고 이려는 데는 팔짱 끼고 보다가 여유 있게 가르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대인 노릇을 하지, 여유가 없으면 대인 노릇을 못하죠. 나라의 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법을 정해놔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모습을 따른해놓고 그 모습이 돼지면서 내 모습 아님이 없느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 아님도 없느냐. 그 뜻을 여러분도 차차 가시면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들어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요. 자장면 그 집이 맛있더라 이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자장면 있다는 소리도 이름도 못 들으면 그거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죠. 그런 거와 같이 그저 제가 생략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땡겨놓으면 여러분이 다 그것을 그대로 요리로 알고 맛있게 잡수실 겁니다. 잡수고서 소화가 잘되라고 합니다. (대중 박수)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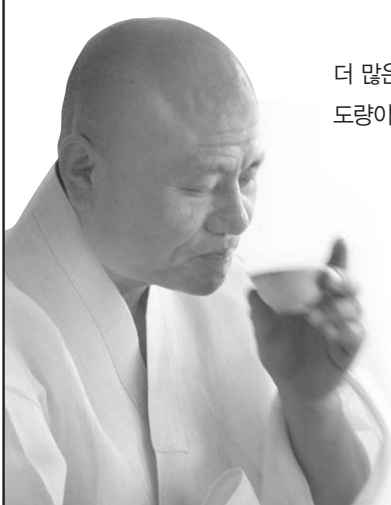
질문자(여): 포함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연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원 차원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당신의 팔자 운명의 그 차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차원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다시 당신이 좋은 데로 피해서 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차원을 또 만나게 돼요. 자기 그림자는 항상 먼저 가 있죠. 하하. 그러니까 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벗어나려면 그거를 사람끼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음, 모든 게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로다. 과거나 지금 현실이나 미래를 또 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그럴 거다.' 하고 거기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면 바로 과거에 살아온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인력이 됐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051) 244-1251
(02) 2198-5151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전함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